“한국말, 어렵지만 배우니까 즐거워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자랑대회 열어
네팔 · 베트남 등 8개국 근로자들 다수 참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별한 한국어 자랑대회가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10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혜공 스님(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서영애 교수(광주대학교)를 비롯해 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경연을 펼쳤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정착과 사업장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불교계가 마련한 대회다. 대회에서는 네팔 · 베트남 · 동티모르 · 인도네시아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캄보디아 · 미얀마 등 8개국 참가자 수십 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총 15명이 진출했다.

경연은 ‘한국 여행이야기’ ‘한국에서 알게 된 일’ ‘한국음식’ ‘나의 한국생활’을 주제로 직접 겪은 일화를 3분 동안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치열한 경연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30세 위보워(Sukaryono Wibowo)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보워 씨는 자신의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음식도 날씨도 달라 많이 힘들었다”면서 “보통 우리 친구들은 주말마다 일 안하면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

국내 정착 돕는 한국어경연
여행 · 음식 · 한국생활 주제로
본인 적응기 차분히 풀어낸
인도네시아 위보워 씨 대상

하지는 저는 주말마다 무조건 한국어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잘하고 싶으면 한국 직원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많이 보면 좋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보워 씨는 대상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위보워 씨 외에도 최우수상에 놉 스레렉(캄보디아), 우수상에 어드가닉(몽골), 씨뚜서원(미얀마), 수띠부따(캄보디아), 가스토요(인도네시아), 써저툰라임(미얀마) 씨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부상으로 캠코더, 자전거 등이 전달됐다. 아울러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캄보디아 전통춤, 인도네시아 · 네팔 · 통티모르 · 미얀마 노래공연이 이어져 더욱 흥을 돋웠다.



10월 9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서 열린 ‘제3회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 행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통춤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이주성 센터장은 “언어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의 길이기 때문에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언어 소통이 이뤄지면서부터였다”며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규범과 규칙 등을 이해하고, 건강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행사 의의를 설명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혜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을 알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어에 대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옴천사, 호남 최대 약사여래불 점안

10월 8일, 선각종도 700여 명 동참

선각총림 강진 옴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0월 8일 경내 약사여래대불전 앞에서 ‘호남 최대의 약사여래대불 점안 및 국민화합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를 열었다.〈사진〉

가을비가 내린 이날 행사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옴천사가 조성한 약사여래대불은 높이 17미터의 호남 최대 규모 청동불로, 2년간의 불사로 완성됐다.

행사는 약사여래대불 점안을 기념하는 도량게, 육법공양(선각종문화예술단), 개회, 내빈소개, 봉행사, 축사, 장학금 전달식 등 1부에 이어 가수 송춘희, 이애란, 이명주, 현진우 등 20여 명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효사랑 큰잔치가 열려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봉안한 약사여래대불로 부처님의 참 뜻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고통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축사에서 “부처님께서 사시던 때에 비하면 지금 세상은 훨씬 편리해지고 넉넉해졌다.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세상은 훨씬 불공평하고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더 깊고 커졌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약사여래대불 점안을 통해 더욱 평화롭고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돌탑으로 유명한 옴천사는 이날 점안식과 함께 경내 3000기 돌탑 완성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사찰 창건 후 20여 년 동안 3000기의 돌탑을 완성한 정암 스님은 “모든 국민들의 희망과 안녕을 바라는 돌탑을 더욱 정진해 5000기까지 쌓아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두 행복해집시다”

신광사, 월호 스님 초청 특별법회

비구니 수행도량 광주 신광사(주지 일명)는 10월 8일 대웅전에서 ‘월호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회주 경주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원로스님들과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월호 스님은 강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그 선물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신광사 주지 일명 스님은 “힐링 강연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불교적 지혜로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좋은 불교지침을 얻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성보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10월 7일, ‘성보문화유산 역사와 가치’ 세미나

금산사의 성보문화재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는 10월 7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 세미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관련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1부에서 ‘금산사 방등계단의 가치와 위상’에 대해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하고, 교토불교대 혜담 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 연구’를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이 발표하고, 강삼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토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금산사 대적광전 연원과 전통- 회통불교의 도상학(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금산사 미륵전 벽화연구(김창균 동국대 교수)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금산사 은입사 향완의 특징과 중요성(최응천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토론자로는 각각 한정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고승희 동국대 교수, 이요진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나섰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보다 널리 확산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금산사 도량이 전란과 뜻하지 않은 화마를 겪으면서도 많은 성보문화유산을 잘 보존 ·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불보살의 가피”라고 강조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장 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발표된 주제와 토론들이 향후 금산사 성보문화유산의 가치를 보다 선양하는데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의 등불 장병들이 밝혀주길”

군산지역 공군부대 호국 충렬사 10월 13일 개원

군산지역 공군부대 불자장병의 신심을 증장시킬 군법당이 문을 열었다.

공군 8325부대(부대장 정지웅 소령)는 10월 13일 군산 영병산 호국 충렬사 개원 및 비로자나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한 호국 충렬사는 우리나라 서해안 영공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 군법당이다. 그동안 법당이 없어 매주 불자장병들이 신행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공군38전대 호국 군성사 법당을 이용해왔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장병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감 있는 병사가 돼 호국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봉 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비록 작은 법당으로 불자장병들의 쉼터와 신행공간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전 부대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법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국 충렬사는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요충지로 선운사와 참당암 등 지역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 아래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했다. 특히 축서사 무여 스님은 충렬사의 법당 이름을 직접 지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현판 글씨를 직접 써주며 법당 개원에 힘을 보탰다.


호국 충렬사 개원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비로자나불을 점안하고 있다.

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순창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관음사 주지 도천 스님, 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스님, 공군작전사령부 군종실장 상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윤봉 법사, 이선복 공군38전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10월 6일에는 공군부대 호국 의상암에서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는 위문법회 및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위문법회는 아리랑 문화예술단이 출연해 각설이 품바공연을 비롯한 위문공연이 펼쳐졌다. 또 여산 법사는 장병들을 위해 색소폰 연주를 선보여 장병들을 놀라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